**데이비드 터너 박사, 마태   
복음 강의 11B – 마태복음 26장: 예수님의 수난 I: 배신, 체포, 유대인들의 심문**

안녕하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11b 강의입니다. 저는 데이비드 터너입니다.

이번 강의는 마태복음 26장의 수난 이야기에 대한 두 강의 중 첫 번째입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마태복음 27장에 나오는 수난 이야기를 다룰 예정입니다. 여기서 다룰 내용이 너무 많아서 아쉽게도 시작에 불과합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갈릴리 전도 이후 반복적으로 예언되어 온 절정의 사건들이 이제 우리가 이 수난 이야기를 소개하는 순간 펼쳐지려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이라는 예언은 여러 번 반복되어 왔으며, 12장 38절부터 40절, 16장 4절과 21절, 17장 12절, 22절과 23절, 20장 17절부터 19장 21절, 38절과 39절, 23장 32절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26절에서도 자신을 대적하는 세력들을 잘 알고 계셨지만 , 앞으로 겪게 될 고난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데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을 반대하고 멸하려 하는 바로 그 유대 지도자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시려는 계획을 이루기 위해 자신도 모르게 사용하시는 도구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보내신 마지막 한 주는 네 복음서 모두에서 자세히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과 더불어 예수의 공생애 이전 생애에 대한 자료가 거의 완전히 생략되었다는 점은 복음서가 단순한 역사 연대기나 전기가 아니라 신학적으로 동기를 부여받은 문학 작품임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종려 주일 이후의 사건들은 마태복음 21장에서 28장까지를 포괄하므로, 예수 생애의 마지막 한 주가 마태복음의 약 3분의 1에서 4분의 1을 차지한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 누군가 복음서가 장황한 서론이 있는 수난 이야기라고 말했는데, 이는 약간의 과장일 뿐입니다.

마태복음의 예수 고난 이야기는 21장부터 23장까지의 성전 분쟁 이야기와 24장과 25장의 종말론적 담론으로 시작됩니다. 이 두 부분에서 마태복음의 자료는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보다 더 방대합니다. 마태복음 26장부터 28장까지의 수난 이야기에 관해서는, 마태와 마가는 대체로 누가복음과, 특히 요한복음과 유사하며, 독특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전반적인 흐름은 26장에서 제자들을 준비시키고, 26장 마지막에 겟세마네에서 체포하고, 26장에서 가야바 앞에서의 재판과 베드로의 세 번의 부인, 27장 초에 빌라도 앞에서의 재판, 27장 후반에 예수를 조롱하고, 아리마대 요셉에 의한 장례를 치른 후, 28장에서 대명령에 따른 부활과 부인으로 이어집니다. 이 자료를 살펴보면 다른 복음서와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에만 있는 여러 부분이 있으며, 이 독특한 마태복음 자료를 주의 깊게 연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 테이프에 그것을 묘사할 시간이 없지만, 보충 자료의 47페이지에 그러한 독특한 구절들을 나열했고, 이 복음서가 흐르는 방식과 우리에게 줄곧 가르쳐 온 것을 생각하면서 그 구절들을 더 주의 깊게 살펴보시기를 권장합니다.

이제 26장 1-5절에 대한 몇 가지 주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예수님을 체포하고 죽이려는 음모가 처음으로 언급됩니다. 5번째이자 마지막으로 26장 1-2절에서 마태는 예수님의 설교를 일반적인 방식으로 마무리합니다. 다만 이번에는 단순히 예수님께서 이 말씀들을 마치셨다고만 하지 않고, 모든 말씀을 마치셨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마태는 26장 1절을 단순히 설교의 끝으로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복음서에서 가르치신 모든 것의 끝으로 묘사합니다.

이 구절은 마태복음 28장 20절을 떠올리게 합니다. 4장 17절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제 완성되었습니다. 유월절이 이틀 후면 시작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넘겨지실 것을 예상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3-5절에서 마태가 마가의 음모를 언급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26장 2절에서 하신 말씀을 확증해 줍니다. 예수님을 향한 음모는 꽤 오랫동안 진행되어 왔지만, 12장 14절과 22장 15절을 기억하십시오. 하지만 성전 안의 갈등을 고려하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대제사장 가야바와 만나 예수님을 비밀리에 체포하여 죽일 계획을 세울 이유가 그 어느 때보다 더 커졌습니다.

유월절 축제를 위해 예루살렘에 도착한 수많은 순례자들에게 예수님의 인기가 높았기 때문에 비밀 유지가 필수적이었습니다(21:26과 27:24 참조).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 유월절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겠다고 제안하면서 그들의 목표는 더 빨리 달성될 것입니다. 이제 26:6-13에 나오는 베다니에서 예수님께 기름을 부으신 사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구절에서,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한 무명의 여인이 예수님의 핵심 제자들보다 예수님의 지상 생활이 짧다는 것을 더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사실에 우리는 충격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주장에는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돌봐야 하지만, 그들의 타이밍은 전혀 맞지 않습니다. 예수님 곁에서 그분의 수난 예언을 반복해서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아직도 그들의 귀에 쟁쟁하게 남아 있어야 할 예언을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평소처럼 행동합니다. 이 장의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실례합니다만, 이 여인은 예수님을 섬기는 동정적인 모습으로 묘사되지만, 제자들은 오해하고 바로잡힙니다.

물론 배신자인 예수는 이름 없는 여자의 약점을 드러내는 인물입니다. 노트 48쪽에 그 여자와 유대 지도자들에 대한 묘사에서 드러난 문학적 문제들을 몇 가지 나열해 두었습니다. 제자들은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어느 정도 중립적인 입장을 취했습니다 . 여기서 예수께서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 하신 말씀을 그들의 필요에 대한 냉담한 태도를 정당화하는 데 악용해서는 안 됩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항상 존재한다는 그의 말은 신명기 15:11을 암시하는데, 이 구절은 빚을 용서받는 안식년이라는 맥락 속에서 궁핍한 사람들에 대해 현실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신명기 15:1, 2).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안식년이 가까웠고 빚이 완전히 갚기 전에 용서받을 것이기 때문에 돈을 빌리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신명기 15:7-10). 하나님의 축복은 빚을 갚지 않을 때 손실된 것을 채워줄 것입니다(신명기 15:4, 6, 10, 14, 18). 따라서 전반적으로 신명기 15장은 땅에 가난한 사람이 없도록 궁핍한 사람들을 돕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신명기 15:4).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11과 26:11을 언급하신 것은 불가피한 상황에 대한 냉정한 진술이 아니라 지속적인 책임을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지속적인 책임은 예수께서 지상에서 보내신 마지막 날들을 돌보는 긴급성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제 26장 14-16절에서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한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유다는 비참하고 불가사의하게 악한 인물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2절과 26장 24절을 비교해 보세요.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배신한 동기는 성경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 중 하나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유다가 지도자들에게 얼마를 줄 것인지 물었기 때문에 탐욕 때문에 그런 행동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베다니 여인이 값비싼 향유로 예수님께 기름을 부었을 때, 그는 돈을 낭비하는 것에 혐오감을 느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을 비교해 보세요. 다른 이들은 유다가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메시아를 찾고 있었고, 예수님의 영적인 메시지가 특히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널리 받아들여지지 않자 환멸을 느꼈다고 주장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절과 요한복음 6장 70-13절은 유다의 행동 뒤에 사탄의 영향력이 있었음을 언급합니다.

봄버그의 해설은 다소 과장되어 유다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어쨌든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나중에 후회하며 자살합니다(27:3-10). 여기서 스가랴 11:12-13에 대한 암시는 미묘하지만 중요합니다. 유다의 배신을 구약의 예언과 연결시켜 마태복음 26장의 주제, 즉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배신까지도 통제하고 계시다는 주제를 뒷받침하기 때문입니다.

이 심오한 문제는 깊이 생각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은 유다의 끔찍한 배신을 깊이 생각하고, 열두 제자 중 한 명이 주님을 배신할 수도 있다는 사실에 대해 초대 제자들과 함께 슬퍼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각자는 " 주님, 제가 그 사람이 아니겠습니까?"(26:22)라고 자문 해야 합니다 . 이제 유월절과 주의 만찬에 대해 26:17-30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구절은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 17-19절은 유월절 준비, 20-25절은 만찬 중 배신 예고, 26-29절은 성만찬 제정, 그리고 30절은 본론으로 돌아가는 내용입니다. 일부 사람들의 확신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 중 어느 시점에서 배신을 예고하시고 만찬을 제정하셨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 마태는 이 사건들을 역사적인 유월절 만찬과 연관 짓고자 했지만, 자신의 신학적 목적과 무관한 역사적 세부 사항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

마태복음의 신학적 목적에서 유월절 만찬은 시작이자 끝입니다. 그것은 최후의 만찬, 즉 예수님께서 체포, 재판, 그리고 십자가 처형을 앞두고 제자들과 함께하신 마지막 만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첫 번째 만찬, 즉 예수님의 새로운 공동체가 예수님을 기억하기 시작하는 시작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의 모형과 예언을 성취하신 것은, 마치 그분의 보고에서 새것과 옛것을 꺼내시는 것과 같습니다.

13장 52절을 기억하십시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주의 만찬은 유월절 그 자체가 아니라 유월절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장차 그들이 최후의 만찬을 재현하며 빵과 포도주를 마실 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죄를 사하심으로써 그들을 위해 피를 흘리셨음을 기억할 것이며, 장차 왕국에서 그들과 함께 식탁에 참여하시겠다는 약속을 기억할 것입니다.

바울이 말했듯이, 그들이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그분의 죽음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 주님의 만찬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그분이 행하신 일과 앞으로 하실 일을 상기시키기 위해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그들의 현재 존재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과거에 처음 오셨던 그분의 재림과 이 땅을 다스리기 위해 미래에 오실 그분의 재림으로 구성됩니다. 이러한 진리는 그분의 백성이 성찬에 참여하여 믿음으로 참여할 때 그들의 마음에 강력하게 인쳐집니다. 주님의 만찬 성사는 무력한 기념이나 공허한 표징이 아니며, 자동적으로 구원의 은혜를 주는 마법적인 원천도 아닙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예수 복음의 핵심 진리를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역동적으로 강화합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아마도 정기적인 교제나 사랑의 만찬의 맥락에서 성만찬을 지켰을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 교회에서 부활절에 유월절 세데르를 기념하는 것이 널리 행해지고 있지만, 신약 시대의 만찬 순서는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아가다를 신약성서에서 다시 해석하여 기독교적 유형론적 의미를 부여하려는 시도는 유익할 수 있지만, 이러한 관행은 미약한 역사적 근거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미슈나 페사힘 10은 세데르 전례의 가장 오래된 자료로 여겨지지만, 미슈나는 서기 200년 이후에야 편집되어 기록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유월절 만찬을 자신의 만찬 제정의 맥락으로 사용하셨다는 것은 분명해 보이며, 마태오에게 주님의 만찬이 유월절을 완성했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 일치점의 정확한 세부 사항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자신을 버릴 것이라고 예언하신 2631-35절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구절은 1622년에 이미 살펴보았듯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대적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2631-34절에서 베드로의 미래 행동을 두 번 예언하시고, 베드로는 26장 33-35절에서 두 번이나 이를 강력히 부인합니다.

모든 제자들이 흩어지고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말을 들은 베드로는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린다 해도 자신은 결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단언합니다. 예수님을 버리는 것보다 더 나쁜 짓을 할 것이라는 말을 듣고, 오히려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할 것이라는 말을 듣자, 베드로는 자신이 먼저 죽겠다고 단언합니다. 이어지는 이야기는 베드로가 두 가지 모두에서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베드로는 이전에도 잘못을 저질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실패를 극복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슬픔을 기쁨으로, 패배를 승리로, 버림을 새로운 충성으로 바꾸는 사건이 될 것입니다(26:32, 28:7, 10, 16-20). 이 시점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버리고 부인하려는 자신의 성향을 인정할 만큼 자신을 잘 알지 못했지만, 26:75에서 이 쓰라린 교훈을 배우고 예수님과의 교제와 예수님을 위한 사역으로 회복될 것입니다. 특히 요한복음 21장을 비교해 보면, 전승에 따르면 베드로는 결국 예수님을 부인하기 전에 죽게 됩니다.

이제 26장 36-46절 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신 주님의 기도를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제자들이 잠든 세 가지 주기가 이 구절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놀랍도록 명확하면서도 동시에 놀랍도록 슬픈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돌아와 그들이 잠든 것을 보시고 세 번이나 반복하신 이 말씀은 예수님과 제자들에 대한 요점을 매우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께서 홀로 기도하신 것은 여러 가지 이유로 주목할 만합니다. 첫째, 이 기도들에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자신의 뜻보다 앞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은 앞으로 닥칠 고통과 고난을 현실적으로 예상하십니다. 27장 46절과 비교해 보면, 예수님은 그런 고통을 겪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아버지의 계획에 순종하기로 결심하십니다 .

이 기도에서 그는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모범적인 기도, 즉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기도하는 기도를 본받습니다. 그의 기도는 또한 2641절에서 육신의 연약함을 인식하고 깨어 기도하라는 자신의 권고를 본받습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의 하나님 중심성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예수님의 유혹과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없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실 것입니다 . 주님을 하나님으로 시험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을 하나님으로 경배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으로서 주님의 뜻을 행하실 것입니다. 설령 그것이 고통과 죽음으로 이어진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이러한 이해가 그분의 신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면, 히브리서를 참고해 보면 됩니다. 히브리서는 예수님의 고난이 어떻게 그분을 제자들을 위한 동정심 많은 대제사장으로 준비시키셨는지 강조합니다.

히브리서 2 :14-18, 4:14-16, 5:7-9를 참고하십시오. 고상한 기독론이 결코 우리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겪으셨던 고난의 실체를 이해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히브리서 26:37-39, 42-44)

하나님의 아들의 성육신이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참으로 신적이면서도 참으로 인간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는 겉보기에 온순해 보이는 기자 클라크 켄트와 같은 고대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클라크 켄트는 사실 인간이 아니라 크립톤 행성에서 온 방문객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경험은 그분의 강인함만큼이나 웅변적으로 제자들의 연약함을 일깨워 줍니다.

베다니에서 예수님께 기름 부음의 의미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것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죽음이 가까웠다는 것을 일깨워 주시는 것에 마음이 집중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자신들이 예수님을 버리겠다고 예언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분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한목소리로 부인하는 것은 죄악된 자기 확신에서 비롯된 명백한 불신앙입니다. 용감하다고 여겨지는 이 사람들은 모두 예수님과 함께 밤새도록 깨어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의 가장 가까운 제자들조차 예수님의 가장 취약한 순간에 그분을 저버립니다.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세베대의 아들들은 천국에서 가장 높은 자리를 원했고, 2022년에 예수님의 잔을 마시겠다고 약속했지만, 예수님이 홀로 마셔야 할 잔에 대한 부담을 함께 나누기 위해 깨어 있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겟세마네에서의 그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체포되셨을 때 그들이 예수님을 떠난 것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잠든 모습은 도덕적 시험에 직면했을 때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할 필요성을 독자들에게 일깨워줍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제자들의 연약함을 경험하신 것을 떠올리면, 우리 자신의 연약함도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의 약속은 그분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분을 섬기는 우리를 지탱해 줍니다. 이제 우리는 2647-56년에 예수님께서 체포되신 사건으로 넘어갑니다.

해그너가 지적했듯이, 26:47에서 예비적인 준비는 끝났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피할 수 없는 고난과 죽음, 그리고 그들 자신의 실패에 대비하도록 준비시키셨습니다. 이제 한밤중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체포되어 버림받으셨는데, 제자들이 떠나는 모습은 마태복음 16:25을 예시합니다. 예수님은 매우 편파적인 재판이나 심문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침에 그는 빌라도 앞에 나타나 십자가형을 당할 것입니다. 오후 3시쯤이면 그는 죽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 아니 하늘에 계신 그분의 아버지께서 실제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분명한 인상을 받습니다.

이 구절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전복자나 열광주의자가 아니었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듯합니다. 비록 26장 61절에서 예수님을 향해 곧 제기될 거짓 고소가 그런 의미로 암시되기는 하지만 말입니다. 예수님은 잔을 마시는 데 체념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앞에 놓이셨으며, 제자들에게 폭력은 더 큰 폭력으로 이어질 뿐이라고 가르치십니다. 제자들은 그들의 허세에도 불구하고, 26 장 35절에서 예수님의 체포에 형식적인 저항만 하고 모두 도망칩니다.

예수를 체포하기 위해 파견된 무리는 대제사장의 지휘를 받는 성전 경비병들로 구성된 것으로 보이며, 그 또한 매우 냉담한 인상을 줍니다. 왜 그렇게 많은 무리가 있었을까요? 왜 온갖 무기를 들고 다녔을까요? 그리고 왜 어둠 속의 그처럼 외딴 곳에 있었을까요? 예수의 용맹함, 유다의 배신, 제자들의 비겁함, 그리고 체포단의 공격적인 행동은 각 당사자의 성격상 자발적인 행동으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구절에서 하나님의 예정된 계획이 강조된다는 점도 눈여겨봐야 합니다.

26장 2, 18, 24, 31, 39, 42, 54, 56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 양립하는 성경적 양상을 보여주는 또 다른 예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야바 앞에 첫 번째 재판이나 심문을 위해 나타나셨을 때, 상황은 그다지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26장 57절에서 68절까지는 예수님의 두 가지 재판 중 첫 번째 재판을 설명하고 있지만, 여기서 "재판"이라는 용어가 너무 강할 수도 있습니다.

대제사장 가야바 앞에서의 재판 이야기는 두 가지 문학적 목적을 달성합니다. 첫째, 전체 과정의 추악한 본질이 26장 59절에서 61절에 명확히 드러납니다. 둘째,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의 메시아라고 주장하시는 것이 절정에 달하여 이스라엘 지도자들 앞에 제기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 7장 13절을 분명하게 암시하며, 예수님은 자신이 거짓 고발자들과 재판관들을 심판하기 위해 돌아올 메시아적 인자임을 인정하십니다(26:64). 그러나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증언을 거부하고, 그분을 신성모독죄로 고발하며, 26장 65절부터 68절까지 비꼬고 극심한 경멸로 대합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인자를 다시 데려와 재판관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확언하시는 것이 그들을 격분시키는 듯합니다.

그들은 이러한 종말론적 역전을 숙고하지 않을 것입니다. 27장 54절에 나오는 로마 군인의 고백은 마태가 이방인 선교를 강조하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대조를 보여줍니다. 이 구절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제시되는지에 대해, 해그너는 예수님께서 이보다 더 자신을 드러내시는 곳은 어디에도 없다고 말하며, 그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미래에 하신 말씀, 즉 26년 64년 6월 26일 말씀이 암시하는 기간은 상당히 광범위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실 때 영광스러운 인자로 임명될 것이며, 가야바 자신도 결국 이 현실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가야바는 자신이 부당하게 판단했던 그 분이 언젠가 자신을 판단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졌느니라"(28, 18절) 라고 말씀하실 때, 높임을 받으신 인자로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 그러나 부활은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통치를 시작할 뿐입니다. 요한복음 7장 39절, 12절, 23절, 12장 32절, 33절, 17장 4절, 5절, 사도행전 2장 32절, 33절, 13장 33절부터 37절,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 요한계시록 5장 5절부터 10절을 비교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통치는 그분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고 땅을 다스리심으로써 완성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과 13장 41절부터 43절, 16장 27절, 19장 28절, 24장 30절, 25장 31절을 참고하십시오. 부활은 예수님의 주장을 입증하고 원수들의 멸망을 확정합니다.

이 땅으로의 재림은 최후의 심판을 실현하며, 온 인류가 인자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정죄받고 믿는 자들은 상을 받으며, 예수님께서는 저주가 사라진 새 세상에서 영광 가운데 당신의 백성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이제 이 구절과 관련하여 다시 반유대주의 문제가 제기됩니다 .

역사적으로 볼 때, 이 재판은 미슈나 산헤드린 4장부터 7장까지의 논고에 나와 있는 공정한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되지 않았음이 분명합니다. 이 논고 에 따르면, 재판은 밤에 열릴 수 없었고, 사형 사건은 하루 만에 판결이 내려질 수 없었습니다. 마태복음의 다른 여러 세부 사항들은 미슈나의 재판법과 상충됩니다 . 이러한 변칙성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추론은 미슈나 전통이 실제가 아닌 이론적인 것이며, 예수 재판 후 150여 년이 지나서야 기록되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전통은 이전 시대부터 구전으로 전승되었다고 주장합니다. 비복음주의자들은 마태가 선전 목적으로 이야기 의 대부분 또는 전부를 지어냈다고 비난합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베어의, 아니, 베어의 주석이 그렇게 보입니다. 이 관점에서는 마태의 목표는 유대인들을 비난하고 로마인들을 무죄로 밝혀 로마 당국의 환심을 사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마태와 그의 공동체가 여전히 스스로를 유대인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주장은 무너집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대할 때 자신들의 기준을 따르지 않았음을 보여주기 위해 정확한 역사적 정보를 자신의 이야기 속에 보존합니다. 사도 행전 6장 11절 이하에 나오는 스데반의 사례도 주목하십시오. 군중이 알아차리고 무교절이 본격화되기 전에 예수님을 재빨리 제거하기 위해 그들은 자신들의 규칙을 어기는 것이 유리했습니다.

마태는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심지어 자기 시대의 모든 유대인을, 더 나아가 그 이후에 살았던 모든 유대인을 고발하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재판 이야기는 예수 시대의 예루살렘 정권을 목자 없는 양처럼 이스라엘을 흩어지게 한 부패한 지도자들로 묘사하는 마태의 일관된, 노골적인 부정적 묘사의 일부로 보아야 합니다. (9:36 비교)

이 지도자들은 율법과 선지자들을 더 중요한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방식으로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율법의 의로움을 흐리게 하는 인간의 전통을 따르려고 했습니다(마태복음 15:1-14). 유대인으로서 마태가 유대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예루살렘 기득권층의 부패를 강조했을 때, 그는 반유대주의자가 아니었으며 , 그를 반유대주의자로 보는 그리스도인들은 심각한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반유대주의적 편견을 옹호하는 자들은 최대한 강력한 어조로 철저히 규탄받아야 합니다. 마태의 신학적 관점에서 볼 때,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죽인 책임은 부패한 유대 지도자들이나 나약한 로마 총독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죄인들의 행위를 통해 모든 민족의 죄인들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피 흘림으로 용서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장의 마지막 부분, 베드로의 세 번의 슬픈 부인입니다. 산헤드린은 예수님의 예언적 통찰력을 조롱했고, 이제 베드로의 부인은 그것을 입증합니다. 이 구절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는 세 번의 비난과 그에 뒤따르는 세 번의 점점 더 심해지는 부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하녀에 불과한 그에게 겁을 먹고, 그의 부인이 점점 더 욕설과 욕설 로 점철되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 26:70, 72, 74를 비교해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에게서 멀어지면서, 2669년 안뜰에서 26:71년 성문으로, 그리고 2674년 떠나면서 이러한 부인은 더욱 강렬해집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모든 것을 버렸던 제자들은 이제 모두 그분을 버렸고, 먼저 부르심을 받은 자는 마지막에 떠났습니다. 베드로가 두려움이나 당혹감 때문에 주님을 한 번 부인한 것에는 쉽게 공감할 수 있지만, 세 번이나, 점점 더 격렬하게 부인한 것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성경은 많은 경우, 속담처럼, 영웅들의 약점을 있는 그대로 보여줍니다.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 솔로몬을 생각해 보십시오. 마태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에서 제자들의 모순과 실패를 수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이하에 언급된 예수님의 베드로 회복에 대해서도 그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독자는 제자들의 연약함에 대한 또 다른 직설적인 증언을 접하게 됩니다. 12장 32절에 언급된 용서와 2632절에 기록되어 있고 28장 7, 10, 16절에서도 반복되는 예수님께서 나중에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시리라는 약속을 떠올려 보면 이러한 증언은 다소 누그러집니다. 베드로의 부인은 모든 제자들의 연약함의 기저에 깔려 있지만(2635절), 부활하신 메시아께 충실하고 그분의 권능과 임재 안에서 살아간다면 그들의 메시아적 사명이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베드로와 예수님을 비교해 보는 것은 유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 앞에서 메시아적 정체성을 고백하실 때, 베드로는 하녀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죄에 대해 즉시 깊은 슬픔에 잠기지만, 27장 3절에 나오는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베드로와 유다를 비교해 보는 것도 유익합니다.

유다는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주님을 배반합니다. 그 후 그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유대 지도자들에게 거절당하여 27장 1절부터 10절까지에서 자살합니다. 베드로 또한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주님을 부인합니다.

그 후, 그는 뉘우침을 느낍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회복시켜 주시자, 그는 제자들의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다시 맡게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비슷한 행동에서 그런 상반된 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요? 베드로의 경우, 인간적인 연약함이 순간적인 실패로 이어졌지만, 베드로의 삶의 패턴은 제자로서의 삶이었습니다. 베드로에게 공평하게 말하자면, 그는 예수님을 따라 대제사장의 뜰로 들어간 유일한 제자였습니다.

물론, 그는 그곳에서 비참하게 실패했지만, 다른 사람들은 전혀 가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유다의 후회는 진정한 회개에 걸맞은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 이야기에서도 다시 한번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 첫 번째입니다. 그는 이야기 전반에 걸쳐 대표적인 제자로 언급되며, 무리를 대표하여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베드로의 부인에 경악하고 그의 회복에 감격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님의 대표적인 제자입니다. 이제 요약하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을 처형하려는 음모가 진행되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지상 사역의 마지막을 준비시키십니다. 감동적인 장면에서, 제자들은 겟세마네에서 고통스러운 싸움을 벌이시는 예수님과 함께 잠도 이루지 못합니다. 그 후 유다는 유대 지도자들에게 주님을 배신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가야바 앞에 끌고 가서 재판을 받게 합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세 번 부인합니다. 마태복음 26장의 줄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을 준비시키시는 모습과 바리새인들이 자신의 죽음을 재촉하려는 계략을 엮어냅니다. 26장의 사건들이 빠르게 전개되는 가운데,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거듭 예고하시면서 상황을 통제하십니다.

26:2, 12, 21, 23, 24, 28, 32, 45, 54. 또한 26:31-35에서는 이것이 그의 제자들에게 가져올 시련을 강조합니다. 심지어 겟세마네에서의 그의 투쟁조차도 그의 통제라는 주제를 손상시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항상 아버지의 뜻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26:39, 42, 44. 또 다른 강력한 주제는 하나님의 주권인데, 특히 구약의 성취와 관련이 있습니다. 26:24, 31, 54, 56, 64절을 참고하십시오.

따라서 유다의 극악무도한 배반과 유대 지도자들의 악한 계략은 모두 죄악된 행위이자 죄 사함을 은혜롭게 베푸는 신적 필연성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장은 하나님의 주권과 사람들의 책임 있는 행위가 양립 가능한 성경적 진리임을 보여주는 심오한 증거이다. 비록 우리가 이러한 진리를 미약하게 표현할 수 있을지라도 말이다.